

## 고 김대중 전대통령의 마지막 고향 방문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 개관식

글·사진 최 성 환  
신안문화원 국장

2009년 한 해동안 개최된 신안군의 여러 문화행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는 하의도에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이 문을 연 것이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열린 개관식에는 하의도 출신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더해주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숙원 하던 고향방문도 자연스럽게 성사되었다. 기념식이 열린 2009년 4월 24일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마지막으로 고향 하의도를 방문한 날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날의 현장 분위기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개관식에 참석한 고 김대중 대통령.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은 옛 하의북초등학교 자리에 건립됐으며, 조선 중기 이래 350여 년에 걸친 하의3도(하의도·상태도·하태도) 사람들의 목숨을 건 농지탈환의 역사를 담고 있다. 전체 면적은 612㎡ 규모의 1층 건물로 종합안내센터, 정보검색실, 토지항쟁기념실, 농경문화실 등을 갖추고 있다. 기념관 내의 토지항쟁기념실은 ‘역사의 땅’, ‘항쟁의 땅’, ‘평화의 땅’ 등 3구역으로 나눠 토지항쟁의 역사를 상세하게 보여주며, 농경문화실은 하의도의 민속문화, 농업,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념관 앞에는 8m 높이의 농민운동 추모기념탑과, 하의3도를 상징하는 조형물, 농민운동 관련 인물 공적비 등이 건립되어 있다.

개관식은 신안 출신 최하림 시인이 하의3도 농민운동을 소재로 창작한 ‘삼백삼십삼년 뒤에 부르는 노래’ 시비 제막식과 극단 갯돌의 축하 공연(해월상생굿) 그리고 개관기념식으로 구성되었다. 기념식은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농지탈환운동 약사보고, 기념사, 축사, 테잎커팅, 기념관 관람 및 기념식수 등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박지원 국회의원, 이윤석 국회의원 등 내외贵宾과 그를 뜨겁게 환영하는 1,000여명의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친필로 만들어진 기념관 현판 앞에서 테잎 커팅을 한 후 김학윤(하의3도토지탈환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의 안내로 내부 전시물을 관람하였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날 하의도의 날씨는 매우 좋지 못했다. 삼백오십년에 걸친 농민운동의 한 맺힌 눈물이 비가 되어 내렸는지, 오전부터

1. 개관식 기념행사장면.
2. 하의도 농민운동기념관 전경.
3. 고 김대중 대통령 친필로 작성된 기념관 현판.
4. 스승인 초암 김연선생 영정앞에서 참배하는 모습.
5. 김연 유물전시관 모습.





▲하의초등학생들과 함께.

2009년 4월 24일

14년 만에 고향 방문.  
선산에 가서 배례.  
하의대리 덕봉서원 방문.  
하의 초등학교 방문, 내가 3년간  
배우던 곳이다.  
어린이들의 활달하고 기쁨에 찬  
태도에 감동했다.  
여기저기 도는 동안 부슬비가 와서  
매우 걱정했으나 무사히 마쳤다.  
하의도민의 환영의 열기가 너무도  
대단하였다.  
행복한 고향방문이었다.

—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기 중에서 —

계속 비가 내렸다. 개관식이 끝난 후에는 더 많은 비가 내려 나머지 고향 방문 일정은 건강상 취소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만에 고향을 찾은 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자신을 기다려준 고향 사람들과의 약속을 위해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강행군을 하였다.

먼저 예정된 일정은 모교인 하의초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어린 학생들은 고운 한복을 입고 대선배인 대통령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전대통령은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만나자 밝은 웃음을 보이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 즐거워했다. "할아버지가 너희들 선배야"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아이들 한사람 한사람에게 사인도 해주고, 단체사진을 같이 촬영하기도 하였다. 하의초등학교 교정에 기념식수를 한 후 강당에서 지역 주민들과 오찬시간을 가졌다.

고 김대중 전대통령은 오찬시간 중에 예정에 없이 다시 마이





크를 잡았다. 오전 개관식에서는 기념관 건립을 축하하는 공식적인 축사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는 편안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의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을 이야기 하면서 감회에 젖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하의도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는 큰바위 얼굴을 둘러보고, 어린 시절 자신의 스승이었던 초암 김연의 덕봉강당을 방문하였다. 덕봉강당을 방문할 때는 폭우가 쏟아졌다.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김대중 전대통령 내외는 휠체어에서 내려 덕봉강당에 걸려 있는 스승의 영정 앞에서 헌화를 하고, 묵념을 올렸다. 건강상 힘든 상황임에도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추고, 참배를 하는 모습이 보는 이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내고 한국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위대한 인물이 일개 시골의 서당 훈장이었던 분에게 보여주는 존경과 예의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스승의 영정 앞에서 "이 분이 나를 가르쳤다"고 회고 하였다. 어쩌면 다시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다.

덕봉강당에는 스승인 김연 선생이 평생 수집하고 후학을 지도하는 데 활용한 서적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현장 안내를 하던 필자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말씀은 스승이 남긴 책이 몇 권이나 되느냐는 것이었다. 그 고령의 나이에도 책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였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김연선생의 서당에 다니면서 스승의 독서하는 습관과 선비로서의 정신을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덕봉강당을 나온 후 마지막으로 자신이 태어난 후광리 생가 현장을 돌아보고, 주민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고향 하의도를 떠났다. 그 후 4개월이 지난 후 김대중 전대통령은 영면하였다. 하의3도농민운동기념관 개관식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대통령의 고향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흔적을 찾아 하의도에 올 것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기념관, 모교, 큰바위얼굴, 덕봉강당, 생가 등에 그의 향취가 더 오래 동안 남아 있게 되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고향에 큰 선물을 남기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 축사를 낭독하는 고 김대중 대통령.  
2. 기념 식수 장면.